

신안 자은도 '1004 뮤지엄파크' 다음달 개장

미술관·공원 등 갖춘 복합문화예술단지 바다·숲·문화 아우러져 새 관광명소 기대

천사대교의 끝자락 신안군 자은도에 조성된 '1004 뮤지엄파크'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은 자은면 양산해변 일대 50만㎡ 규모의 '1004 뮤지엄파크' 공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1004 뮤지엄파크'는 뮤지엄과 공원 등 특색있는 테마로 조성된 복합 문화예술단지이다.

바다를 품은 휴양숲 공원은 태초의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섬세한 배치로 현대인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꾸며졌으며, 일출과 일몰도 장관이다.

수석미술관은 파도와 바람이 빚어놓은 수석 300여 점을 최신 ICT기술을 접목해 흥미롭게 꾸몄다. 특히 신안에서 수집된 산수경석은 자연을 옮긴 듯 신비롭다.

미술관 앞 수석정원은 7000㎡ 부지에 3000t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 100여 그루의 분재 등이 해변과 아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조개박물관은 국내 최대의 조개·고등 전문박물관으로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신비한 바다 생태계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준다.

이 외에도 도서 자생식물 연구센터, 신안 새우난 초 전시관, 해송숲 오토캠핑장, 유리공예공원 등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신안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004 뮤지엄파크'는 오는 8월 1일부터 1만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특별 홍보 기간에는 입장료 일부를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 뮤지엄파크는 바다와 숲,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아우러지도록 조성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친구, 연인들이 많이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수석정원은 기암괴석과 야생화, 분재 등이 아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신안군 제공>

영광 대신항 방파제등대 완공 목포해수청, 칠산타워 형상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영광군 백수읍 대신항에 방파제 등대 1기(사진)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대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직경 2.6m, 높이 12.4m 규모의 붉은색 등대로 인근 칠산타워 모양을 형상화했다.

방파제 등대가 설치된 대신항은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영광군의 대표 관광지인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해 있다.

대신항 방파제 등대는 배후 영광대교와 해안 경관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수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대신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어촌 체험활동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등대와 관광 기반시설이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상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문학상 공모 하세요 영광에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시, 다음달 1일~17일까지 모집 목포 자연·역사·인물 소재 작품

목포시는 전국의 신인·기성 문인을 대상으로 '제12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목포문학상은 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 등 한국 문학을 이끈 선구 문학인들을 배출한 목포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9년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본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공모 소재를 목포의 자연·역사·문화·인물·해양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해 우리 지역에 관한 다양한 문학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했다.

본상(전국)은 소설에 1000만원, 시(시조)·희곡 분야에 각 500만원, 수필·동시 분야에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지역 작가에게 수여되는 남도작가상은 소설·시(시조)·수필·동시 분야에 각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작은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소설·희곡은 각 1편, 시(시조)·동시 3편, 수필 2편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우편(마감당일 소인 유효)으로만 가능하며 당선작 발표는 9월 16일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문학상을 통해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문학작품이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240억원 들여 2022년 완공 건축설계안 최종 확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이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수단을 말한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건축설계 공모작 심사위원회를 열고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과 ㈜중합건축사사무소 장이 공동 출품한 작품을 '지식산업센터' 설계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일원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내년 3월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들어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영광군 제공>

년 5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센터 건립에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40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4층, 연면적 1만4041㎡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입주시설과 기업지원시설, 야외 교육·체험장 등을 갖추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산·학·관 협력체계 완성을 통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고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외래품종 벼 퇴출, 해남 농업인들 몽쳤다

일본계 품종 재배면적 제로화 결의대회

해남군은 지난 7일 옥천농협에서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외래품종 벼 퇴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과 시범농가의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외래품종 벼는 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농촌진흥청 및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고품질 쌀 품종 육종개발과 재배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해남군은 2025년까지 외래품종 벼 면적 제로화를 달성하고, 식량주권 회복과 국내품종 재배

쌀의 밥상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 퇴출 종자주권 수호'를, 전남농업기술원은 '국내육성 우량품종 확대재배' 선언을 통해 종자산업의 탈 일본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옥천면에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 생산단지 20ha를 조성해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인 새봉황·예찬·수광·청품 등 4종과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 전남 9호 등 총 5개 품종의 재배를 시작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조선 기능인력 훈련 장려금 지원 영암군-현대삼호중공업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과 지역산업·일자리 창출 상상 방안의 하나로 사내 훈련기관을 활용한 '조선 기능인력 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을 편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 물량 확보 등으로 조선 분야 기능 인력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영암군 주관으로 2억여원을 투입해 훈련생 115명을 양성한다.

영암군에 신청하면 서류전형 등 절차를 통해 훈련생으로 선발 후 훈련생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업 관련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힘겨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지만 군과 기업체의 상생 협력으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평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